

실무형 수출현장 전문가 200명 육성

산업부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내달 초 교육기관 선정... 입찰 공고 전국 13곳 특성화·마이스티고 대상 수출기업 필요로하는 청년 인재 양성 1년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가 수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무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 무역 기조와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실무형 무역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4월 초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학교별 교육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6월에는 책임교사 간담회를 열어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6~10월에는 학교별 일정에 따라 무역 실무 및 원산지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티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는 전국 13개 특성화·마이스티고에서 약 200명을 선발해 1년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 무역 및 해외마케팅 실무 ▲ 원산지 관리·증빙·검증 대응 등 원산지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모의무역 실전 대회에도 참여한다. 또한 관세·물류 등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직 무역 전문가의 멘토링도 제공된다. 수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해외 근무 경험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진로 설계를 돕는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1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및 현지 기업 방문 기회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고

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마이스티고 중심 교육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관련 교육도 늘릴 방침이다. 박근우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동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1년 뒤 당당한 무역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 재직자 대상 FTA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고, 통상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FTA·통상 사이버 아카데미(onkpc.or.kr/fta)'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며 가입절차 없이도 열린 과정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가 AI 솔루션 도입 부담 낮출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영월 찾아 스마트농업 확산·농촌활력 제고 논의



절 중인 생애토 농가를 찾았다. 이 농가는 0.5헥타르(ha) 규모의 비닐온실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솔루션은 온도 급등과 같은 이상 변화를 감지할 경우 휴대전화로 알림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쉽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가는 솔루션 도입 이후 병충해는 전년 대비 20% 줄고, 생산량은 18% 늘었다고 그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업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농협이 운영하는 스마트 APC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RFID(무선 주파수 추적 기술), 자동 선택·당도 선별기, 로봇팔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상품화 공정을 자동화한 시설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25일 강원 영월 소재의 AI 기반 영농 솔루션 도입 농가를 찾아,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촌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농촌창업 기업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농가의 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낮추고, 유통 현장의 자동화·규격화를 지원하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생산-유통-가공 각 단계의 혁신을 촉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AI 솔루션을 통해 온실 내 온·습도 및 토양수분을 실시간 조

중동전쟁, 국내 전력수급 영향 제한적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 감소 등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제한적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중동 사태가 그간 전력수급 및 전력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가동해 서아시아 지역 상황에 따른 에너지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비상대응반은 전력 수급 상황 등을 파악하는 에너지상황점검반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대응반, 전력시장 영향을 살펴보는 에너지시장대응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공조를 맡는 국제협력반으로 구

성된다. 각 대응반은 주요 현황을 보고하고 다음 주부터 실행할 세부 대응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응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상황 중동 전쟁이 장기화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고유가

가 지속되거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핵심 관리 품목은 ▲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 전용 유류 ▲암모니아수 ▲무수암모니아 ▲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이다. 아울러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사회에 에너지 절약문화 알린다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14개 기관에 3800만원 규모 상금

한국전력은 25일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전과 4개 기관(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 협력해 추진한다. 참여기관들은 각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159개 기업

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10.3GWh의 전력을 절감했는데, 이는 발원용 LNG(액화천연가스) 약 1500톤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참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소속 공연장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5월 31일까지 대한전기협회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진대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전력 절감 실적과 실천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8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中서 189만弗 농산업 수출계약

'중 농약·작물보호 박람회' 참가



'중국 국제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중국 농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189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이달 17~19일 기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2026 중국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CAC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행사장에서는 997만 달러(238건)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88만 달러(12건)의 수출 업무협약과 1만 달러(1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식량안보법'을 개정하고 자국 내 식량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난달 설 특수에 유통업체 매출 7.9% ↑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백화점 식품 매출 65% 급증

설 명절 특수와 소비심리 회복 영향으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백화점은 식품 판매가 급증하며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2월 주요 유통업

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14.1%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3.9%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2024년 10월 이후 17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업태별로는 백화점(25.6%)과 편의점(4.0%)이 8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형마트는 15.1%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준대규모점포(SSM)는 0.4%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백화점은 소비심리 개선과 설 특수 영향으로 전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식품 매출이 65.0% 급증하며 전체 성장세를 주도했다. 대형마트는 설 선물세트와 성수품 판매 증가로 식품 매출이 18.8% 늘며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세종=한용수 기자